

10·26 서울시장 보선 초반 판세와 쟁점

박원순, 나경원에 9~10%P 앞서

羅 후보, 병역기피 의혹 제기 등 네거티브 공세... 초반 과열양상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선거전이 사실상 시작되면서 초반에 승기를 잡으려는 여야의 레이스에 속도가 붙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선거 초반 야권 단일후보인 박원순 후보가 앞서는 가운데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의 추격전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뒤지고 있는 한나라당이 박 후보를 향해 네거티브 공세를 시작하면서 선거전은 초기부터 과열양상으로 치달고 있다.

무소속 박원순 후보가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를 9~10%포인트 가량 앞질러 달려가고 있다. 이에 한나라당은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가 지난 7일 서울지역 유권자 6000명을 대상으로 RDD(임의번호걸기·Random Digit Dialing) 방식의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나 후보가 46.6%, 박 후보가 이보다 3.1%포인트 높은 49.7%로 지지율이 집계됐다고 9일 밝혔다. 지지격차가 줄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민주당 등 야권은 이 같은 결과를 수긍하지 않고 있다. 지지격차가 변하지 않았다는 것

“이것이었다며 ‘박 후보의 입양과 군복무에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박 후보도 기자들의 질문에 ‘공직선거에 나서면서 검증은 피할 근거가 없다. 근거를 갖고 얘기해주면 얼마든지 답하겠다’고 정면 대응의 자세를 취했다. 한나라당의 공세가 격한데도 박 후보 측은 현재로서는 “네거티브 선거전에 일일 대응하지 않겠다”는 상대 후보 공격을 자제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장 보궐선거 투표 기호가 확정됐다. 한나라당 나 후보는 1번, 범야단일후보인 무소속 박 후보는 10번을 배정받았다.



범야권 박원순 후보가 8일 오후 서울 영등포 교보문고에서 열린 자신의 책 '세상을 바꾸는 천 개의 직업' 시인회에 참석해 시민들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가 9일 서울 종로일대 돈의동 쪽방촌 주민생활을 돕는 '돈의한가족센터'를 방문해 할머니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전국 재보선 지원 나선듯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10·26 재·보궐선거에서 서울시장 선거에 국한하지 않고 전국 여러 지역을 순회하며 지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대표가 지난 6일 기자들과 만나 '정치의 위기'를 언급하며 재보선 지원 방침을 밝히는 과정에서 "서울 위주로 지원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 "다른 지역에서도 보궐선거가 있다"고 밝힌 것이 이번 관측에 힘을 실어준다. 이와 관련, 대변인적인 이정현 의원은 9일 "지원유제 지역 확대 등을 포함해 당 관계자와 상의한다고 박 전 대표가 언급하지 않았느냐"고 했다.

다른 핵심 측근은 "당 관계자라는 것은 당 지도부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 후보도 될 수 있고 시도당 위원장, 해당 지역 국회의원도 될 수 있다는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경제자문역인 이한구 의원은 라디오에 출연해 "후보자들과 당에서 어떤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하면 거기에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박 전 대표가 선거지원 방침을 밝힌 이후 각 지역에서 지원 요청이 쇄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표가 '전국 지원유제'에 나선다면 이는 지난 2007년 대선 경선 이후 처음이 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박근혜 선거 지원 판세 흔들지 못할 것” 한나라 정두언 의원

한나라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 정두언 소장은 7일 박근혜 전 대표의 나경원 서울시장 후보 지원에 대해 "개입을 안 하겠다는 것보다는 훨씬 도움이 되겠지만 판세를 그렇게 흔들다고 보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정 소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나경원 대 박원순, 서울시장 선거판세를 어떻게 밝힌 이후 각 지역에서 지원 요청이 쇄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표가 '전국 지원유제'에 나선다면 이는 지난 2007년 대선 경선 이후 처음이 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나경원 선대위 대변인 '음주방송' 책임 사퇴

한나라당 나경원 서울시장 후보 선대위 대변인인 신지호 의원이 지난 8일 오후 '음주방송' 논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변인직에서 사퇴했다. 선대위 상황본부장인 권영진 의원은 9일 "신 의원이 선대위 대변인직에서 물러나 선거를 돕겠다는 뜻을 밝혀왔다"며 "이에 선대위는 당과 협의해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신 의원은 지난 7일 술을 마신 후 'D-20일, 서울의 선택은'이라는 주제로 생중계된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음주방송' 논란을 빚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안철수 “박원순에 투표하겠다”

적극 지지 표명... 야권·시민사회 명망가 대규모 선대위 꾸려질듯

박 후보, 부채 7조원 감축 등 '10대 공약' 발표

야권의 서울시장 주자인 박원순 후보의 초반 기세가 심상치 않다.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 원장이 적극적 지지 의사를 표명한 가운데 야권과 시민사회의 명망가들이 총동원된 대규모 선대위 책임위원회가 꾸러질 예정이기 때문이다.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 원장은 9일 박원순 야권 단일후보가 선거 지원을 요청한다면 "생각해 보겠다"고 밝혔다. 안 원장은 이날 광화문 교보문고에서 열린 '시골의사' 박경철 원장의 팬 사인회에 참석, "박 후보가 선거 지원을 요청하면 지원하겠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이어 "박 후보에게 투표할 것이냐"는 물음에는 "당연하다"고 말해 박 후보에 대해 변함없는 지지의 뜻을 밝혔다. 여기에 야권 단일후보 경선에서 맞붙었던 민주당 박영선, 민노당 최규업 후보 등은 공동선거대책본부장으로 거론되고 있다. 대변인으로는 현재 박 후보 캠프 대변인을 맡고 있는 송호창 변

반문하는 등 적극 비판하고 나섰다. 또한, 내년 대선을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와 자신과의 대결 구도로 보는 것에 대해 "언론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라고 일축했으나 '박 전 대표와의 비교가 부담스럽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걸 왜 부담스러워 해야 하느냐"고 말해 여론을 납득했다. 이런 가운데 10일에는 야권의 명망가들이 총동원된 선대위가 출범할 예정이다. 선대위 상임위원장은 민주당 손학규 대표, 상임본부장에는 이인영 최고위원이 내정됐으며 민노당 이정희, 국민참여당 유지민 대표,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도 공동 선대위원장에 이름을 올릴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야권 단일후보 경선에서 맞붙었던 민주당 박영선, 민노당 최규업 후보 등은 공동선거대책본부장으로 거론되고 있다. 대변인으로는 현재 박 후보 캠프 대변인을 맡고 있는 송호창 변

호사와 민주당 우상호 전 의원이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박 후보측은 특히 이번 선대위를 자원봉사자 등 일반 시민을 중심으로 꾸리기로 했다. 시민의 자발적 참여로 기존 정당정치 틀을 뛰어넘겠다는 의지로 앞장선다. 선거운동의 테마는 '경청과 소통'으로 잡고 진정성 있게 시민들에게 다가가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한편, 박 후보는 9일 임기 내에 서울시의 부채 7조원 감축과 2014년까지 초중등 무상급식 실시 등을 골자로 하는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박 후보는 이날 이화여고 100주년 기념관에서 '서울을 바꾸는 희망섀벗' 공약 발표회를 갖고 "정치적 계산이 아닌, 시민을 중심으로 계산하는 시정을 펼쳐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희망섀벗'이란 ▲희망더하기(+) ▲불만덜리기(-) ▲활력곱하기(×) ▲행복 나누기(÷) 등 4개의 시정목표로 구성됐으며, 총 10개의 핵심정책들로 이뤄졌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전남 재보선 5곳 후보 등록 3.6대 1 경쟁

13일부터 공식 선거운동

10월26일 치러지는 하반기 전남지역 재·보궐선거 후보자등록 결과 3.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10·26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전남지역 광역·기초의원 재·보궐 선거지역 5곳에 18명의 예비후보가 등록을 마쳐 평균 3.6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밝혔다. 지난 6일과 7일 이틀 간에 후보자 등록을 받은 결과 전남도의원 재선거의 경우 장성군 제2선거구에서 4명, 함평군 제1선거구에서 6명의 후보자가 등록을 마쳐 평균 5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군의원 보궐선거는 장성군 나 선거구에서 2명, 화순군 다 선거구에서 4명, 무안군 가 선거구에서 3명이 각각 등록을 마쳐 평균 3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재·보

선이 치러지는 전국 42개 선거구에는 모두 162명이 등록, 평균 3.9대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한편, 지난 7월 28일 공직선거법이 개정됨에 따라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 마감일 후 6일부터 오는 13일부터 가능하며, 오는 12일까지는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명함배부, 전자우편 전송, 어깨띠 착용, 전화 통화, 문자 메시지 발송 등의 방법으로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장로) ▲모정환(40·무·전 청호건설 대표) ▲김천희(55·무·셋빌유치원 원장) ▲김천식(69·무·전 영광군청 직원) ▲육부호(49·무·전 합평 농업조합장) ■기초의원 ▲장성군 나 선거구 ▲천승욱(59·민·전 남면농협조합장) ▲김희식(49·무·장성군 생활체육회 이사) ▲화순군 다 선거구 ▲양정승(46·민·전 민주당 최인기 의원 민원실장) ▲안호걸(46·무·아름다이어 대표) ▲이광현(33·무·(주)이-셀트 친환경인증기관 연구소장) ▲송영후(39·무·전 민주당 광주시당 청년국장) ▲무안군 가 선거구 ▲이병호(49·민·전 민주당 무안·신안지구당 총무부장) ▲정찬수(58·무·전 무안농협 근무) ▲박석장(50·무·선해건설(주) 대표이사)

Advertisement for 'Wedding, Guest Room, Sangmu-gu Tourism Hotel, Art Stage of Grand People's Performance'. It features a large bouquet of flowers and text describing the hotel's amenities, including a wedding hall for 100+ guests, a 500-seat restaurant, and various services. Contact information: 362-0011, 600-9999.

Advertisement for '현대공인중개사' (Modern Real Estate Agency). It lists various real estate services and properties for sale/rent, including land, houses, and commercial buildings. Contact: T. 062)371-1900, 010-2006-0115.

Advertisement for '수원지구 상가 분양 전문 임대 전문' (Suwon-gu Commercial Real Estate). It promotes real estate services for commercial properties, including a 1-story residential building and various commercial spaces. Contact: 062)961-3377.

Advertisement for '다와부동산 재테크컨설팅' (Dawa Real Estate). It offers real estate investment consulting services, including property management and investment analysis. Contact: T. 010-4911-4989 FAX. 062-226-3607.